

#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여부 오늘 결정

### 시민모임, 중재안 수용 언급 없이 질문형식 입장문 발표...의제 설정 등 문제 제기 논란 일 듯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질문 형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민모임 측은 최 위원장이 확정한 공론화위원회의 의제 설정, 11월 10일까지 최종 결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최 위원장은 광주시와 시민모임, 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 등에 중립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속의형 조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용 입장이며, 시민협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인 '저상도(底架道) 지하철'에 반대해온 시민모임은 13일 격론 끝에 질문지 형태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시가 그동안 반대해온 속의 조사를 수용하게 된 배경과 속의조사 방식을 묻고 공론화위원회의 의제를 시와 시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준비모임에서 제시하고, 11월 10일로 못박은 결정 시한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 최 위원장은 입장문에 대해 "속의형 조사

방식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는 물론 의제까지 공론화위에서 결정해야 하며, 11월 10일까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권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일단 입장문에 대해 검토한 뒤 14일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지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중립 인사 7명으로만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 요구사안이고, 속의형 조사는 시민모임 측에서 시중 주장해온 방식이다. 중립 인사 7인은 법률가 1명, 조사통계 전문가 1명, 갈등관리 전문가 2명, 소통전문

가 2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속의형 조사는 300인 속의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의제 설정과 방식에 있어서 시, 시민모임,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등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보인다. 신선호 시민모임 대표는 "시가 수용한 속의 조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공론화의제마저 공론화위원회에 남기는 것은 문제며, 기일 역시 비전문가인 최영태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전제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론화위에 불참하고 장외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과거 분란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민주, 5·18 진상조사위 상임위원회에 송선태 전 5·18 재단 상임이사 추천

### 비상임위원회에 이성춘 교수 한국당 추천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5·18 진상조사위 상임위원회에 송선태 전 5·18 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회에 이윤정 전 시의원, 이성춘 송원대 교수를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민주평화당에서는 민병노 전남대 법대 교수를 각각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중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5·18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추천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진상조사위는 14일부터 활동할 수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그만큼

출범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내 TF에서는 특검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와 안전 전남대 교수를 각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당 지도부의 개입으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총리를 지낼 때 송선태 전 상임이사와 함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되면 TF를 구성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 장관급인 5·18 진상조사위원 자리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안중철-송선태 상임위원의 경쟁 구도지만 누가 되더라도 중량감이 떨어진다.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위원 선정을 놓고 좀 더 소통을 해야 했다"며 "여당의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 NLL 일대 완충지대 설치 논의

### 남북 군사실무회담 NLL 기준 설정에는 이견 평양 정상회담 담판 주목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수석대표인 조용국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이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함정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합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가동과 합대사령부 간 핫라인 설치 합의 등으로 서해 NLL 일대에 제한적으로 이뤄진 평화를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하나로 NLL 일대에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합정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에선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올해 들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동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했고, 북측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해상사격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LL 일대에 함정출입과 사격훈련을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논의는 남북공동어로도 가능한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그러나 NLL을 기준으로 남북 해역에 일정한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지는 우리측의 제안에 북측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

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자와 연필을 들고 협의하고 있지만, NLL 문제에 분차하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만만치 않음을 전했다.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소(GP) 시범철수와 DMZ 내 공동유해발굴 등의 의제와 함께 서해 NLL 일

대 평화적 방안도 협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 남북공동어로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남북 군사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 면적으로 조성하자는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한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는 남측 영역으로 뒤 굴곡이 매우 심하게 설정돼 있다. /연합뉴스

# 어등산 조성 재추진 여부 오늘 판가름

### 민간 사업자 2차 공모 2곳 시민평가단 심사 등 개최

광주시관광수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 2차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 평가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심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13일 광주시는 "2차 사업자 공모에는 주식회사 호반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등 2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14일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수익성 등 불안 요인과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지역 내 반발 등의 이유로 대기업이 나 중견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2차 공모 결과 지역 중견기업인 호반이 참여하고 1차 공모에 사업계획서 제출 경험이 있는 국제자산신탁도 재응모했다. 광주시는 평가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사위원회는 개발계획·사업실행능력·공공기여 방안·관리운영 계획·가격 평가 등 5개 분야에서 32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1000점 만점에 850점 이상을 받아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있다. 또 시민평가단 50명은 이들 2곳의 업체 850점 이상이 나오면, 사업계획을 담은 영상을 보고 투표를 통해 각각 1점의 가산점을 행사한다. 하지만 1곳만 850점 이상이 나오면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민간 사업자 사업제안 공모 결과 5개 업체가 사업합자 의향서를 접수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는 1곳만 제출했다. 지난 6월 11일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이 업체 사업계획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번에도 2차 공모를 하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임야

\*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

바로합니다. 010-6834-7400

## 투자자 모집

공통투자가능/월15%이상 수익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오천원매 대부. 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수강생 모집

###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펜션·전원주택지

- 영암 금정면 저수지부근 땅 1816㎡ 김나무농장·사찰 적합 89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촌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찻집등적합 1억3천

###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생촌동 2층 주택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천

### 투자·매도·교환

- 공장적합 담양 대덕면 고속도인접 접중지 8451㎡ 은행3억5천 매도3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601㎡ 은행1억 투자에 양호 매도2천만원
- 나주시 동수동 자연복지 12076㎡ 교통 출몰 14억73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전북 신대인 상업지 1213㎡ 김정 6억7천 은행 3억6천 교환가능 (작은병원·빌라·아파트 등 적합) 매 4억6천
- 총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용적합 7억7천
- 유등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 5가역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생촌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상가건물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펜션 땅 332㎡ 객실,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천
- 목포시 북항 푸드타운 1층 91㎡ 은행 9천 매도·교환 3억4천
- 동구 수기동 소방도 코너 4층건물 380㎡ 건물990㎡ 은행6억 매도 12억8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중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